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8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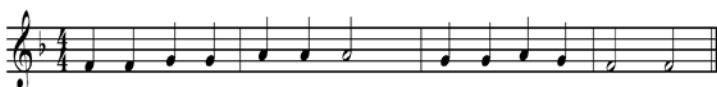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24)	봉헌 (512)	성체 (160)	파견 (26)
---------	----------	----------	----------	---------

제1독서 | 창세 22,1-2,9,10-13,15-18
 화답송 | 시편 116(114-115),10과15,16-17,18-19,21(◎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제2독서 | 로마 8,31-34

복음환호송 |



Praise to you, Lord Je- sus Christ, King of end- less glo- ry!

복 음 | 마르 9,2-10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2/18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2/25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3/4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11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미사책대금
	\$190	\$80	\$350	\$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0	김 요아킴/ 고 안나	2/2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1/27	김 유스티노/김유스티나	3/3	오 베드로/ 오 루시아
2/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3/10	손 아놀드/ 손 쟈마
2/10	김 마론/ 김 헬레나	3/1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3/24	이 요한/ 이 마틸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오는 성체조배는 3 월 1 일 입니다.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서 만나는 시간 되시기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오는 임원회의는 3 월 11 일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00 문의: 박 바오로

모임 날짜가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 마르코복음과 함께 (금요일 오후 7 시)

다음 성경은 마르코복음 7,8 장을 필사하시고 그것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성당 교리실 입니다. 문의: 유요한 형제님

****사순기간 동안에는 십자가의 길 후에 하게됩니다.****

**** 성가책을 들려주세요 ****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는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가정으로 가져가신 성가책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매일미사 책값 안내

올해 미사책값이 일년치 50 불, 권당 5 불로 책정 되었습니다.

본당 재정 사정으로 미사책 값을 납부하신 수 대로 책을 주문하고 그 분에 한하여 미사책을 나눠드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주일 미사 후)

다음 소 공동체 모임은 3 월 18 일 주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한인공동체 조식 봉사 3 월 13 일(화) st. Vincent de Paul center

봉사해 주실 분들은 아침 7 시 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문의: 이 그레이스 자매님

십자가의 길 (금요일)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이 매주금요일 마다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말씀의 이삭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정희선 카타리나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저는 서울 가톨릭 사진가회(이하 가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틀에 갇혀 있던 저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의 생활로 연결되면서 신앙의 일치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단체 활동에서 은총을 받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거의 4년에 걸쳐 '가사회' 회원들이 함께 추진해 온 전국 공소 사진집의 편찬 작업에서입니다.

한국의 천주교회 역사에서 공소는 다양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목자 없이 자생적으로 태동되었던 초기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교우촌은 곧 공소의 초기 형태입니다. 그 후 18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불어 닦았던 수차례의 박해를 겪으면서, 살아남은 신자들은 산골 오지로 숨어들어 공소에서 신앙생활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본당까지 나오기에는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신자들을 위해서 또는 한센병 치유자들처럼 사회로부터 소외된 집단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공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옛 공소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된 우리 '가사회'가 공소를 찾아 한국 천주교회 초기의 모습을 유추해 보고 또 공소의 현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전국 630개에 달하는 공소를 찾아 그 역사와 현재를 알게 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힘든 여건에서 사제도 없이 삼삼오오 모여 굳건하게 믿음을 키워 온 현장인 공소를 방문하면서 선조들의 숭고한 신앙의 발자취를 헤아려볼 수 있었고, 현재 공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모습도 정겨웠습니다. 이 나라 천주교회를 반석 위로 이끌어 오신 주님의 강한 손길에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진 작업의 결과를 책으로 펴내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수백 개 오지의 공소를 찾아다니던 회원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게다가 공통점이랄까 사진을 좋아하는 천주교 신자라는 것뿐. 그 외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30여 명의 회원이 커다란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려다 보니 시행착오도 컸고, 의견 충돌과 대립도 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의 4년에 걸친 기간,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문제에 적용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서로에 대한 인내와 착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의 값진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족하나마 전국 공소 사진집의 발간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사이에 계시어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실감하고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성가가 두 배의 기도라고요?

“은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156항) 성가는 성가대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례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이 함께 한마음으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